

미군정기 재일조선인 발행 신문의 사설 고찰*

- 『民主新聞』·『朝連中央時報』·『文教新聞』을 중심으로 -

이행화**
mua-winter@hanmail.net

이경규***
lk51202deu.ac.kr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3. 재일조선인 신문의 사설 |
| 2. 재일조선인 신문의 발행과정 | 3.1 民主新聞 |
| 2.1 民主新聞(民團新聞) | 3.2 朝連中央時報 |
| 2.2 朝連中央時報 | 3.3 文教新聞 |
| 2.3 文教新聞 | 4. 나오며 |

主題語: 재일조선인(Koreans in Japan), 미군정기(The US occupation period), 신문사설(A newspaper editorial), 이념(Ideology), 신탁통치(Trusteeship)

1. 들어가며

1945년의 해방과 동시에 찾아온 조국의 분단은 잠정적인 구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조선인 대다수의 인식이었다. 재일조선인들은 38선 이남과 이북으로 나뉘는 상황이 지속되리라고 보지 않았다. 당시의 재일조선인들은 스스로를 해방된 민족이고 오히려 일본인들에 대해서는 정복당한 민족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패전 직후 일본에 남아 있던 재일조선인들은 전쟁이 종식됨에 따라 처지가 바뀌게 된 국가의 국민으로도 언급된 바 없는 특이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¹⁾

전후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일본에 남은 조선인들은 자신들을 위한 조직을 만들어야

* 이 논문은 2016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 S1A5B4914839)

** 동의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연구원

*** 동의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일본어학과 교수, 교신저자

1) 윤희상(2006『그들만의 언론』천년의시작, p.11

했다. 조국은 해방이 되었지만 곧바로 조국에 돌아갈 여건이 되지 못했고, 미군이 점령하고 있는 일본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조직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조직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조직은 좌파 성향의 재일본조선인연맹이었고, 두 번째 조직은 우파 성향의 재일조선거류민단이었다. 조선의 남쪽과 북쪽에 각기 다른 이념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같은 민족이라는 정서를 공유했던 일본의 조선 사회는 조국의 분단 현실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들 두 조직은 점차 대립적인 성향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들 재일조선인 조직과 산하단체들은 각기 독자적인 간행물을 발행하기 시작하여, 수많은 신문과 잡지가 창간되고 폐간되는 등 재일조선인들의 미디어 활동이 활발하였다.²⁾

전후의 조선은 미·소 군정 하의 분할 주둔으로 신탁통치에 대한 좌우익간의 찬반 갈등이 극심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8년 8월 15일 남조선 단독정부가 수립되었는데, 재일조선인의 입장에서 보면 두 개의 조국이 생겨나는 결과가 된 셈이다. 이에 그 당시에 발행된 신문의 사설을 통해서, 재일조선인들은 당시에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조국의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지향하고자 했던 문제의식은 무엇에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재일조선인 신문의 발행과정

다음에는 재일조선인 발행 신문 가운데 이념적인 성향을 달리하는 『民主新聞(民團新聞)』과 『朝連中央時報』, 『文教新聞』 등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2.1 民主新聞(民團新聞)

1945년 8월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되어 재일조선인들 중에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민족우파 세력이 조선건국축진청년동맹을 결성하고, 항일독립운동으로 투옥되었다가 석방된 박열, 이강훈, 원심창 등을 중심으로 신조선건설동맹을 창립하게 된다. 이어서 이들 두 단체가 통합하여 1946년 10월 3일 재일조선거류민단(이하, 민단)을 발족하기에 이른다. 그 후 민단은 재일동포들의 민생문제 지원과 귀국사업 진행을 위해서 앞장섰으며, 민단 본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2) 嚴基權·李京珪(2017)「戰後在日朝鮮人のメディア活動とその展開について -朝鮮文化教育會と「文教新聞」を中心に-」『日本近代學研究』第57輯

홍보하기 위해 1947년 2월 21일 일본어판 신문인 『民團新聞』을 창간하였다.

『民團新聞』은 창간사에서 「거류민단은 어떠한 정치 이념이나 정치운동에 편중되지 않고, 민단신문도 어떠한 주의 주장에 고집하지 않으며 오로지 민생문제와 문화향상, 국제친선에 매진할 것」이라고 하였다.³⁾ 그러나 1946년 12월 5일 도쿄제국호텔에 머물던 이승만 박사의 「재일동포에 고함(在日同胞に告ぐ)」이라는 글과 더불어, 박열 단장과 회견하는 이승만 박사의 동정을 게재하면서 남조선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⁴⁾ 제9호에는 단장인 박열이 「조선의 건국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를 배격할 것」과 「38도선의 철폐를 위해 남조선임시정부의 출현을 바란다」는 내용의 글을 연재하였다.⁵⁾ 이처럼 민단의 창간 선언서 및 『民團新聞』의 창간사와 달리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지지 표명과 박열 단장의 이승만 지지 방침 등으로 내부 반발이 일어나 신문 발행이 중단되었다. 1947년 10월 25일 제20호를 마지막으로 중단되는데, 중간호에서 발행 및 편집인을 맡았던 박준은 『民團新聞』의 제호가 독자층에게 잘못된 선입관을 주는 등 그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民主新聞』으로 변경하여 독자층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⁶⁾

이러한 과정 속에서 『民團新聞』은 제21호(1947년 11월 1일)부터 제91호(1949년 9월 24일)까지 내용과 구성을 새롭게 바꾸어 『民主新聞』이라는 제호로 발행되었다. 『民主新聞』은 새롭게 제호를 바꾼 이유로서 「재일거류민단은 일본에 거류하는 조선인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그러므로 일부 몇 사람에게 의해 좌지우지되는 정당단체가 아니다. 민단은 올바른 민주주의를 통해 재일거류민의 자주자치, 상호부조를 위한 연합체인 것이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⁷⁾

2.2 朝連中央時報

해방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던 제일조선인들은 해방과 더불어 민족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총결집하여 전국적인 규모의 제일조선인연맹(이하, 조련)을 결성하게 된다. 조련은 제일조선민주청년동맹, 제일조선민주여성동맹, 제일조선해방위원회, 제일조선유학생동맹 등의 산하 조직을 두었다. 조련은 기관지 『朝連中央時報』를 1947년 8월 15일에 발행하기 시작하여 조련이 강제 해산되기 직전인 제135호(1949년 9월 6일)까지 발행되었다. 『朝連中央

3) 「創刊の辞」『民團新聞』第1號, 1947年2月21日

4) 「在日同胞に告ぐ」『民團新聞』第1號, 1947年2月21日

5) 「朝鮮獨立と南鮮臨時政權の動き」『民團新聞』第9號, 1947年6月30日

6) 「民團新聞を改題し民主新聞創刊」『惜別の辞』『民團新聞』第20號, 1947年10月25日

7) 「改題に際して」『民主新聞』第21號, 1947年11月1日

時報』는 조련 본부의 정책 홍보, 정치노선에 대한 이해, 지방조직의 활동성과 보고, 지도자의 선전자료 해설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어⁸⁾ 재일본조선인연맹의 기관지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조련은 「일본제국주의와 봉건세력의 잔재를 청산하고 전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본요구가 실현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완전한 독립국가의 건설을 위해 매진하는 것이 재일동포의 나아갈 노선이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재일동포의 권익옹호와 생활향상, 제국주의 잔재 청산과 진보적 민주주의국가 건설, 세계민주주의의 모든 세력과 제휴하여 국제평화에 공헌할 것」을 강령으로 채택하고 있다.⁹⁾

『朝連中央時報』는 초반에는 한국어판으로 발행되다가 제9호부터는 일본어판으로 바뀌게 된다. 다시 제86호부터는 기사의 일부를 한국어판으로 발행하기 시작하였고 점차 한국어판 지면을 늘리기 시작하여 제133호부터는 신문기사 전체를 한국어판으로 발행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창간 초기에는 주간(週刊) 발행으로 시작하였으나, 점차 일간화(日刊化)를 목표로 발행 주기를 점차 줄여나갔다.

2.3 文教新聞

1945년 9월 15일 조선문화교육회가 창설되고 2년 후인 1947년 9월 15일에 일본어판 신문인 『文教新聞』 창간호를 발행하기 시작하였는데, 경영난으로 인하여 제57호(1949년 4월 11일) 발행을 끝으로 휴간되기에 이른다. 『文教新聞』을 발행하기에 앞서 이념과 노선의 침예한 갈등으로 인해 조선문화교육회는 재일조선문화단체연합회를 탈퇴하게 된다. 그리고 조선인은 일본인을, 일본인은 조선인을 무조건적으로 적대시하는 사람이 많은 현실을 반성하고, 인종적 편견 없이 관용과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문화국가 건설이 필요하다는 선언문을 발표한다.

1947년 9월 15일 『文教新聞』 제1호가 발행되는데, 회장인 최선(崔鮮)은 창간사에서 「창조와 진리의 조선 문화를 수립하고, 문화국가 조선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조선문화교육회는 어떠한 기성정치 이념에도 정치운동에도 편중되지 않을 것이며, 文教新聞 역시 어떠한 주의나 주장에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문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¹⁰⁾ 조선문화교육회는 민단과 조련의 산하단체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¹¹⁾

8) 「發刊의 말」 『朝連中央時報』 第1號, 1947年8月15日

9) 「宣言」 『綱領』 『朝連中央時報』 第9·10合併號, 1947年10月17日

10) 「<創刊之辭> 吾らに平和と幸福をもたらす文化運動」 『文教新聞』 第1號, 1947年9月15日

11) 「文教は民團、朝連の傘下團體に非ず」 『文教新聞』 第56號, 1949年2月28日

특히, 특정의 이념에 치우치지 않을 것이라는 중도파적인 교육방침을 주창하면서 정치면에서도 조련과 민단을 통합하는 「강력한 일원적 조직체」의 창립을 바랐다. 즉 『文教新聞』은 조련과 민단의 대치 속에서 생겨난 좌파와 우파의 대립적인 구도가 아닌, 하나의 이념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전후의 삶을 개척하고자 한 신문으로 재일조선인 문화단체의 가능성과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3. 재일조선인 신문의 사설

3.1 民主新聞

『民團新聞』의 발행 초기에는 사설에 해당하는 글이 없었으며, 『民主新聞』으로 제호를 바꾼 제21호부터 「主張」이라는 란을 만들어 사설이 게재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제29호부터는 「論壇」으로 바뀌어 사설 게재가 이루어졌다. 사설의 주요내용은 「獨立の見解」, 「真正獨立への路」, 「獨立への信念の交流を切望」, 「真正獨立解放への第一歩」, 「南北統一と完全獨立の方途」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외세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그리고 「反對の爲の反對」, 「學校閉鎖指令と共產主義」, 「日常鬭争の実体」, 「不純分子を驅逐せよ」, 「民主々義民族統一戦線と金日成政權」, 「アジア赤化を防止せよ」, 「朝連および民青の解散について」 등과 같이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을 옹호하면서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내용이 사설의 주된 내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民主新聞』의 사설 목록은 『朝連中央時報』와의 비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정부에 의해 조련이 강제로 해산당하는 시기(1949년 9월)의 제91호까지만 열거하기로 한다.

<표1> 『民主新聞』의 사설 목록

| 發行號數 | 發行日 | 社説題目 | 비고 |
|------|-------------|-----------|----|
| 第21號 | 1947年11月01日 | 新聞のあり方 | 主張 |
| 第24號 | 1947年11月22日 | 所謂有能者を排撃す | 主張 |
| 第25號 | 1947年12月06日 | なし | |
| 第26號 | 1947年12月13日 | なし | |
| 第28號 | 1948年01月03日 | なし | |
| 第29號 | 1948年01月10日 | 委員團をむかえて | 論壇 |

| | | | |
|------|-------------|--------------|----|
| 第30號 | 1948年01月17日 | 反対の為の反対 | 論壇 |
| 第31號 | 1948年01月31日 | 「援助」の意義 | 論壇 |
| 第32號 | 1948年02月07日 | 独立の見解 | 論壇 |
| 第33號 | 1948年02月14日 | 不当収税問題 | 論壇 |
| 第34號 | 1948年02月21日 | 「血の肅正」の変貌 | 論壇 |
| 第35號 | 1948年02月28日 | なし | |
| 第36號 | 1948年03月06日 | 独裁を夢みる者 | 論壇 |
| 第37號 | 1948年03月13日 | 真正独立への路 | 論壇 |
| 第38號 | 1948年03月20日 | 太極旗の尊厳 | 論壇 |
| 第39號 | 1948年03月27日 | 二大潮流のうずまく世界 | 論壇 |
| 第41號 | 1948年04月17日 | 南北要人会談への疑問 | 論壇 |
| 第42號 | 1948年04月24日 | なし | |
| 第43號 | 1948年05月01日 | 学校閉鎖指令と共産主義 | 論壇 |
| 第44號 | 1948年05月08日 | 総選挙の効果を拡大せよ | 論壇 |
| 第45號 | 1948年05月15日 | 独立への信念の交流を切望 | 論壇 |
| 第46號 | 1948年05月22日 | 総選挙の結果を見て | 論壇 |
| 第47號 | 1948年05月29日 | 朝鮮を政争の具とする勿れ | 論壇 |
| 第48號 | 1948年06月05日 | 真正独立解放への第一歩 | 論壇 |
| 第49號 | 1948年06月12日 | 南北統一と完全独立の方途 | 論壇 |
| 第50號 | 1948年06月19日 | 現段階における建国指標 | 論壇 |
| 第50號 | 1948年06月19日 | なし | |
| 第52號 | 1948年07月03日 | 特権に有するものに非ず | 論壇 |
| 第52號 | 1948年07月03日 | なし | |
| 第53號 | 1948年07月17日 | なし | |
| 第54號 | 1948年07月24日 | なし | |
| 第55號 | 1948年07月31日 | なし | |
| 第58號 | 1948年08月21日 | なし | |
| 第59號 | 1948年09月11日 | なし | |
| 第60號 | 1948年09月18日 | なし | |
| 第61號 | 1948年09月25日 | なし | |
| 第62號 | 1948年10月02日 | なし | |
| 第63號 | 1948年10月09日 | なし | |
| 第64號 | 1948年10月16日 | なし | |
| 第65號 | 1948年10月23日 | なし | |
| 第66號 | 1948年11月06日 | なし | |
| 第67號 | 1948年11月20日 | なし | |
| 第68號 | 1948年11月27日 | なし | |

| | | | |
|------|-------------|------------------|----|
| 第69號 | 1948年12月04日 | なし | |
| 第70號 | 1948年12月18日 | なし | |
| 第71號 | 1949年01月01日 | なし | |
| 第72號 | 1949年01月22日 | なし | |
| 第74號 | 1949年02月19日 | なし | |
| 第75號 | 1949年02月26日 | 三・一烈士の精神を我等に | 論壇 |
| 第76號 | 1949年03月12日 | 民團機構を刷新 | 論壇 |
| 第77號 | 1949年03月26日 | 矛盾を克服して行け | 論壇 |
| 第78號 | 1949年04月02日 | なし | |
| 第79號 | 1949年04月22日 | 日常闘争の実体 | 論壇 |
| 第80號 | 1949年05月07日 | 五・一〇記念日を迎えての三顧 | 論壇 |
| 第81號 | 1949年05月14日 | 不純分子を駆逐せよ | 論壇 |
| 第82號 | 1949年05月21日 | 二カ年人民經濟計画の裏 | 論壇 |
| 第83號 | 1949年05月28日 | 民主々義民族統一戦線と金日成政權 | 論壇 |
| 第84號 | 1949年06月04日 | なし | |
| 第85號 | 1949年06月18日 | 統一運動の現実 | 論壇 |
| 第86號 | 1949年07月02日 | なし | |
| 第87號 | 1949年07月16日 | 「統一」への渴望と戰略 | 論壇 |
| 第88號 | 1949年08月06日 | アジア赤化を防止せよ | 論壇 |
| 第89號 | 1949年08月13日 | 解放の真意義を再確認せよ | 論壇 |
| 第90號 | 1949年08月27日 | 下関事件をみて | 論壇 |
| 第91號 | 1949年09月24日 | 朝連および民青の解散について | 論壇 |

3.2 朝連中央時報

『朝連中央時報』는 1947년 8월 15일 창간호부터 「主張」이라는 사설을 게재하기 시작하여 조련이 강제 해산되기 직전인 제135호(1949년 9월 6일)까지 사설이 게재되었다. 사설의 주요 내용은 「賣國賊의 再現 封殺하라」, 「時局対策要綱を駁す -軍政延長希望は反民族的行為-」, 「反動の分裂策封ぜよ -組織内の機會主義的偏向を戒む」, 「単政に希望は持てるか?」, 「大韓民国の傀儡政權を葬れ」, 「亡国政府を葬れ」, 「亡国政府打倒の実力を養え」 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는 내용과 「最大限の雅量を以て抱擁 -民族の総結集体具現のために-」, 「一大愛國運動を展開せよ -民戦新三大原則の正しい意義-」, 「祖国人民の蹶起に呼応 -週間活動方針の完全遂行へ」 등의 모든 동포들이 총결집하여 완전한 독립국가의 건설을 위해 매진하자는 내용이 많았다. 그리고 「日警の暴行断乎排撃」,

「日政の陰謀を労働祭で叩き」、「日政の陰謀粉碎せよ」、「教育斗争はかく斗われた」、「教育費獲得斗争を即刻に展開せよ!」、「教育費獲得闘争をあくまで闘い抜け」、「教育闘争に総蹶起せよ」 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소위 한신교육사건¹²⁾에서 촉발한 일본정부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재일조선인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는 등의 강력한 메시지 성격의 사실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높았다.

<표2> 『朝連中央時報』의 사실 목록

| 發行號數 | 發行日 | 社説題目 | 비고 |
|---------|-------------|--------------------------------|----|
| 第1號 | 1947年08月15日 | 解放 二周年을 마지하야 | 主張 |
| 第2號 | 1947年08月22日 | 또 다시 難關에 逢着한 美共委의 活路를 打開하라 | 主張 |
| 第3號 | 1947年08月29日 | 賣國賊의 再現 封殺하라 | 主張 |
| 第4號 | 1947年09月05日 | 財政確立을 爲하야 | 主張 |
| 第9·10號 | 1947年10月17日 | 第三年は内実の期 | 主張 |
| 第11·12號 | 1947年10月31日 | 最大限の雅量を以て抱擁 —民族の総結集体具現のために— | 主張 |
| 第13號 | 1947年11月07日 | —大愛國運動を展開せよ —民戰新三大原則の正しい意義— | 主張 |
| 第14號 | 1947年11月14日 | 「時局対策要綱」を駁す —軍政延長希望は反民族的行為— | 主張 |
| 第17號 | 1947年12月05日 | 税金問題をとりあげよ —敗戦負担は資本家に負わせよ— | 主張 |
| 第18號 | 1947年12月12日 | 改正税法をあばく —非戦災者税に反対せよ— | 主張 |
| 第19號 | 1947年12月19日 | なぜ送金がおくれるか —三点を指摘し、奮発を要望す— | 主張 |
| 第23號 | 1948年01月16日 | 反動の分裂策封ぜよ —組織内の機會主義的偏向を戒む— | 主張 |
| 第24號 | 1948年01月23日 | 十三中委に与う —召集の意義について— | 主張 |
| 第25·26號 | 1948年02月06日 | 十三中の教訓を生せ | 主張 |
| 第27·28號 | 1948年02月20日 | 祖国人民の蹶起に呼応 —週間活動方針の完全遂行へ— | 主張 |

12) 1947년 10월 GHQ는 일본 정부에 「재일조선인을 일본의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에 따르도록 한다」는 지시를 하달하여, 1948년 1월 24일 문부성은 지방정부 지사에게 재일조선인 자녀는 법적 기준에 합당한 학교에 취학할 것과 교사는 일본 정부가 정한 기준에 합당한 사람만이 강의하도록 하였다. 이에 일본 전역에 재일조선인의 민족학교에 대해 폐쇄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이와 같은 민족교육의 탄압, 즉 학교 폐쇄에 대해 야마구치, 히로시마, 오카야마, 효고, 오사카 등지에서 대규모 반대투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효고현과 고베시 당국은 학교 폐쇄 명령을 철회하게 된다.

| | | | |
|---------|-------------|----------------------------------|----|
| 第29·30號 | 1948年03月05日 | 人民共和國樹立促進について | 主張 |
| 第33·34號 | 1948年04月30日 | 救国運動と教育斗争 | 主張 |
| 第35號 | 1948年05月14日 | 民族文化の危機 | 主張 |
| 第36號 | 1948年05月21日 | 教育弾圧に抗して | 主張 |
| 第38號 | 1948年06月04日 | 六・十革命記念日、二十三周年を迎えて | 主張 |
| 第39號 | 1948年06月11日 | 歴史は人民が作る | 主張 |
| 第40號 | 1948年06月18日 | 確心をもって進め | 主張 |
| 第41號 | 1948年06月25日 | 単政に希望は持てるか? | 時論 |
| 第42號 | 1948年07月02日 | なし | |
| 第43號 | 1948年07月09日 | 北陸地方の被災同胞を救え | 主張 |
| 第44號 | 1948年07月23日 | 芦田内閣の反人民的政策をつく | 主張 |
| 第45號 | 1948年07月30日 | 第十五回中央委員会開催の意義 | 主張 |
| 第46號 | 1948年08月06日 | 八・一五記念日に際し同胞に激す | 主張 |
| 第47號 | 1948年08月13日 | 八・二五総選挙の意義 | 主張 |
| 第48號 | 1948年08月20日 | 大韓民国の傀儡政權を葬れ | 主張 |
| 第49號 | 1948年08月27日 | 国際ファッションを打倒せよ —第三九回国恥記念日に際して— | 主張 |
| 第50號 | 1948年09月03日 | 定期大会に備えて新たな決意を固めよ | 主張 |
| 第51號 | 1948年09月10日 | 総選挙とその教訓 | 主張 |
| 第52號 | 1948年09月17日 | この政府を見よ! | 主張 |
| 第53號 | 1948年09月24日 | 亡国政府を葬れ | 主張 |
| 第54號 | 1948年10月01日 | 中央政府州立慶祝大会を前にして | 主張 |
| 第55號 | 1948年10月08日 | 国連第三次大会に対する我々の態度 | 主張 |
| 第56號 | 1948年10月15日 | なし | |
| 第57號 | 1948年10月26日 | 前途は明るい、大胆に進もう | 主張 |
| 第58號 | 1948年10月01日 | 外国人として正當に遇せよ | 主張 |
| 第60號 | 1948年11月11日 | 戦犯はまだいる、嚴重に処刑せよ —極東国際軍事裁判に望む— | 主張 |
| 第61號 | 1948年11月16日 | 朝鮮侵略の責は? —天皇除外のA級戦犯判決につき— | 主張 |
| 第62號 | 1948年11月21日 | 文盲退治に蹴起せよ | 主張 |
| 第63號 | 1948年11月26日 | 不当弾圧の根本対策は先づ職場獲得斗争から | 主張 |
| 第64號 | 1948年12月01日 | 機関誌を生かせ | 主張 |
| 第65號 | 1948年12月06日 | 米軍駐屯要請の陰謀を粉碎せん | 主張 |
| 第66號 | 1948年12月11日 | 我々はいかに闘うべきか | 主張 |
| 第67號 | 1948年12月16日 | 十二月事件を忘れぬ! | 主張 |
| 第68號 | 1948年12月21日 | 中国の進むべき道 | 主張 |

| | | | |
|-------|-------------|---------------------------------|----|
| 第69號 | 1948年12月26日 | 規律を重んぜよ | 主張 |
| 第70號 | 1949年01月01日 | なし | |
| 第71號 | 1949年01月06日 | なし | |
| 第72號 | 1949年01月11日 | 対反動斗争に徹底せよ | 主張 |
| 第73號 | 1949年01月16日 | 「經濟九原則」とわれわれの態度 | 主張 |
| 第74號 | 1949年01月21日 | ソ連との大使交換を祝す | 主張 |
| 第75號 | 1949年01月26日 | 亡国政府打倒の実力を養え | 主張 |
| 第76號 | 1949年02月01日 | 中国人民の勝利 | 主張 |
| 第77號 | 1949年02月06日 | 組織浄化運動を捲起せ —財政問題を中心に二三の自己批判— | 主張 |
| 第78號 | 1949年02月11日 | なし | |
| 第79號 | 1949年02月16日 | なし | |
| 第80號 | 1949年02月21日 | なし | |
| 第81號 | 1949年02月26日 | 現下の情勢と当面の任務 | 主張 |
| 第82號 | 1949年03月01日 | 三・一革命記念日を迎えて | 主張 |
| 第83號 | 1949年03月06日 | 民青結成第二周年記念をむかえて | 主張 |
| 第84號 | 1949年03月11日 | 外資政令問題に勝利して | 主張 |
| 第85號 | 1949年03月16日 | 救援活動を強化せよ | 主張 |
| 第86號 | 1949年03月21日 | なし | |
| 第87號 | 1949年03月26日 | なし | |
| 第88號 | 1949年04月01日 | なし | |
| 第89號 | 1949年04月06日 | なし | |
| 第90號 | 1949年04月11日 | なし | |
| 第91號 | 1949年04月16日 | 日警の暴行断乎排撃 | 主張 |
| 第92號 | 1949年04月21日 | 四・二四事件の一周年を迎えて | 主張 |
| 第93號 | 1949年04月26日 | 日政の陰謀を労働祭で叩き | 主張 |
| 第94號 | 1949年05月01日 | 平和擁護運動に希望と勇気を | 主張 |
| 第95號 | 1949年05月05日 | 教育斗争はかく斗われた | 主張 |
| 第96號 | 1949年05月10日 | 単選一周年を迎えて | 主張 |
| 第97號 | 1949年05月13日 | なし | |
| 第98號 | 1949年05月17日 | 学生達を救え | 主張 |
| 第99號 | 1949年05月20日 | 十八中委会議を成果あらしめよ | 主張 |
| 第100號 | 1949年05月24日 | なし | |
| 第101號 | 1949年05月31日 | なし | |
| 第102號 | 1949年06月03日 | 教育費の要求、衆議院を通過 | 主張 |
| 第103號 | 1949年06月07日 | 機関誌月間を斗い抜け | 主張 |
| 第104號 | 1949年06月10日 | 六・一〇斗争を継承しファシズム粉砕に総決起せよ | 主張 |

| | | | |
|-------|-------------|----------------------------|----|
| 第105號 | 1949年06月14日 | 吉田内閣の打倒は祖国の繁榮と直結 | 主張 |
| 第106號 | 1949年06月17日 | 反動の本質を見極めて中委決定を實踐に移せ | 主張 |
| 第107號 | 1949年06月21日 | 教育費獲得斗争を即刻に展開せよ! | 主張 |
| 第108號 | 1949年06月24日 | 女盟第六回中央委員会に寄せて | 主張 |
| 第109號 | 1949年06月28日 | 機関誌月間を終りながら | 主張 |
| 第110號 | 1949年07月02日 | なし | |
| 第111號 | 1949年07月05日 | なし | |
| 第112號 | 1949年07月07日 | なし | |
| 第113號 | 1949年07月09日 | 全組織あげ財政確立へ | 主張 |
| 第114號 | 1949年07月12日 | 祖国統一戦線の結成とわれ等当面緊急の任務 | 主張 |
| 第115號 | 1949年07月14日 | 教育費獲得斗争をあくまで闘い 抜け | 主張 |
| 第116號 | 1949年07月16日 | 組織破壊の陰謀に備えよ | 主張 |
| 第117號 | 1949年07月19日 | 祖国統一戦線の綱領・宣言を凡ゆる斗争の中で大衆化せよ | 主張 |
| 第118號 | 1949年07月21日 | 宣伝戦に勝て! | 主張 |
| 第119號 | 1949年07月23日 | 敵の陰謀を粉碎せよ | 主張 |
| 第120號 | 1949年07月25日 | 民青の壯途を祝す | 主張 |
| 第121號 | 1949年07月28日 | 「太平洋同盟」締結の陰謀を断乎粉碎せよ! | 主張 |
| 第122號 | 1949年07月30日 | 日政の陰謀粉碎せよ | 主張 |
| 第123號 | 1949年08月04日 | 祖国戦線支持に蹶起の南半部労働者に続け! | 主張 |
| 第124號 | 1949年08月09日 | 前進する祖国戦線と歩調を揃えて進め! | 主張 |
| 第125號 | 1949年08月11日 | 大会準備と草案に就いて | 主張 |
| 第126號 | 1949年08月15日 | なし | |
| 第127號 | 1949年08月18日 | なし | |
| 第128號 | 1949年08月20日 | 百の声明より一つの行動を | 主張 |
| 第129號 | 1949年08月23日 | 教育斗争に総蹶起せよ | 主張 |
| 第130號 | 1949年08月25日 | 言論の暴力と闘え | 主張 |
| 第131號 | 1949年08月27日 | 教同の大会によせて | 主張 |
| 第132號 | 1949年08月30日 | 関東大震災第二十六周年にあたって | 主張 |
| 第133號 | 1949年09月01日 | 失業反對斗争을 精力的으로 推進하다 | 主張 |
| 第134號 | 1949年09月03日 | 신학기를 마지하여 | 主張 |
| 第135號 | 1949年09月06日 | 風水害에 對한 復舊斗争을 組織하라 | 主張 |

3.3 文教新聞

『文教新聞』은 1947년 9월 22일 제2호부터 「主張」이라는 사설을 게재하기 시작하여 경영난으로 인해 휴간에 들어가는 마지막 제57호(1949년 4월 11일)까지 사설이 게재되었다. 사설의

주요내용은 「在日團體統合の秋」, 「在日同胞の團結」, 「今こそ團結の秋」, 「單獨政府樹立絶對反對」, 「南北政治要人會談の成功を祈る」 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선인은 대동단결하여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독립 국가를 건설해 나가야 한다는 내용과 「文化人總蹶起の秋」, 「新文化の要望」, 「民族的欠陥の是正」, 「教育の機會均等」, 「實際的教養」, 「在日二世國民教育の危機」 등의 새로운 문화와 교육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완전한 독립국가의 건설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文教新聞』의 창간사에서 밝힌 「창조와 진리의 조선 문화를 수립하고, 문화국가 조선을 건설해야 한다」는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려는 실천 의지를 담은 사실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3> 『文教新聞』의 사실 목록

| 發行號數 | 發行日 | 社說題目 | 비고 |
|------|-------------|-----------------------|----|
| 第1號 | 1947年09月15日 | なし | |
| 第2號 | 1947年09月22日 | 文化人總蹶起の秋 | 主張 |
| 第3號 | 1947年09月29日 | 新文化の要望 | 主張 |
| 第4號 | 1947年10月06日 | 生活の合理化 | 主張 |
| 第5號 | 1947年10月13日 | 教育の機會均等 | 主張 |
| 第6號 | 1947年10月20日 | 青年の奮起を要望す | 主張 |
| 第7號 | 1947年10月27日 | 義士安重根を偲ぶ | 主張 |
| 第8號 | 1947年11月03日 | 民族的欠陥の是正 | 主張 |
| 第9號 | 1947年11月10日 | 日進月歩に遅れるな | 主張 |
| 第10號 | 1947年11月17日 | 青年運動の將來 | 主張 |
| 第11號 | 1947年11月24日 | 實際的教養 | 主張 |
| 第12號 | 1947年12月01日 | 吾らの言ひ分 | 主張 |
| 第13號 | 1947年12月08日 | 學同臨時總會に寄す | 主張 |
| 第14號 | 1947年12月15日 | 國連の睿智に期待す | 主張 |
| 第15號 | 1947年12月22日 | 知識人は捨石となれ | 主張 |
| 第16號 | 1947年12月29日 | なし | |
| 第17號 | 1948年01月05日 | なし | |
| 第18號 | 1948年01月12日 | 學童用教書について | 主張 |
| 第19號 | 1948年01月19日 | 國定教科書の日本内翻刻發行權本會に許可ざる | 主張 |
| 第20號 | 1948年01月26日 | 國連朝鮮委員團に期待す | 主張 |
| 第21號 | 1948年02月02日 | 聖雄の屍を越えて行け | 主張 |
| 第22號 | 1948年02月09日 | 在日團體統合の秋 | 主張 |
| 第23號 | 1948年02月16日 | 在日同胞の團結 | 主張 |

| | | | |
|---------|-----------------------------|----------------|----|
| 第24·25號 | 1948年03月01日 | 三一革命記念日 | 主張 |
| 第26號 | 1948年03月08日 | 單獨政府樹立絶對反對 | 主張 |
| 第26號 | 1948年03月15日 | 今こそ團結の秋 | 主張 |
| 第27號 | 1948年03月22日 | 人類愛に自覺めよ | 主張 |
| 第28號 | 1948年03月29日 | 日本人の反省を促す | 主張 |
| 第29號 | 1948年04月05日 | 學校閉鎖の惡令を即時撤回せよ | 主張 |
| 第30號 | 1948年04月12日/ 1948年04月19日 | 暴力行爲を排せ | 主張 |
| 第31號 | 1948年04月26日 | 學校閉鎖令に再警告す | 主張 |
| 第32號 | 1948年05月03日 | 南北政治要人會談の成功を祈る | 主張 |
| 第33號 | 1948年05月10日/ 1978年05月17日 | 三つの朝鮮 | 主張 |
| 第34號 | 1948年05月24日 | 送電停止は民族自滅行爲 | 主張 |
| 第35號 | 1948年05月31日 | 南鮮總選舉と居留民團 | 主張 |
| 第36號 | 1948年06月07日 | 學同總會の對立鬭争 | 主張 |
| 第37號 | 1948年06月21日 | なし | |
| 第38號 | 1948年06月28日 | スポーツを通じて世界の朝鮮へ | 主張 |
| 第39・40號 | 1948年07月12日 | なし | |
| 第41號 | 1948年07月19日 | 他山の石 | 主張 |
| 第42號 | 1948年07月26日 | 呂運亨先生を偲ぶ | 主張 |
| 第43號 | 1948年08月02日 | 建青に送る言葉 | 主張 |
| 第44號 | 1948年08月15日 | なし | |
| 第45號 | 1948年08月23日/ 1948年08月30日 | 五輪精神を體して | 主張 |
| 第46號 | 1948年09月06日 | 李承晩大統領に望む | 主張 |
| 第47號 | 1948年09月20日 | なし | |
| 第48號 | 1948年10月11日 | 死を賭してハングルを護れ | 主張 |
| 第49號 | 1948年10月25日 | 北鮮指導者に寄す | 主張 |
| 第50號 | 1948年11月08日 | 民族の恥を晒すもの | 主張 |
| 第51號 | 1948年11月15日 | 吉田首相の反動性 | 主張 |
| 第52號 | 1948年12月06日 | 國軍反亂が教えるもの | 主張 |
| 第53號 | 1948年12月27日 | なし | |
| 第54號 | 1949年01月03日 | なし | |
| 第55號 | 1949年02月14日 | 鄭翰郷博士を迎えて | 主張 |
| 第56號 | 1949年02月28日 | なし | |
| 第57號 | 1949年04月11日 | 在日二世國民教育の危機 | 主張 |

4. 나오며

지금까지 재일조선인 발행 신문 『民主新聞』과 『朝連中央時報』, 『文教新聞』의 사설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 특징을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1945년 8월 일제의 강점에서 해방되어 재일조선인들 중에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민족 우파세력이 조선건국축전청년동맹을 결성하고, 항일독립운동으로 투옥되었다가 석방된 박열 등을 중심으로 신조선건설동맹을 창립하게 된다. 이어서 이들 두 단체가 통합하여 1946년 10월 3일 재일조선거류민단을 발족하게 되는데, 이들 단체의 기관지인 『民主新聞』의 사설은 외세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는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띠면서도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 옹호, 공산주의 배격 등 우파적인 성향의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해방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던 재일조선인들은 해방과 더불어 민족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총결집하여 전국적인 규모의 재일조선인연맹을 결성하게 된다. 이들을 중심으로 발행하는 『朝連中央時報』는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의 강력 반대와 한신교육사건을 계기로 촉발한 재일조선인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당한 대우 요구와 권익옹호 등을 내세운 민족주의적인 성향의 사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조선문화교육회는 『文教新聞』을 발행하기에 앞서 이념과 노선의 첨예한 갈등으로 인해 재일조선문화단체연합회를 탈퇴하게 되는데, 조련과 민단의 대치 속에서 생겨난 좌파와 우파의 대립적인 구도가 아닌, 하나의 이념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전후 재일조선인의 삶을 새롭게 개척하고자 하는 기치를 내걸었다. 조선문화교육회는 조련과 민단의 대치 속에서 생겨난 좌파와 우파의 대립적인 구도를 극복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단체의 기관지인 『文教新聞』의 사설은 『民主新聞』과 『朝連中央時報』의 사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도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요약컨대, 이들 세 신문의 사설은 민족주의와 반일적인 성향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면서도 상대 진영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성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설 논조의 차이는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이나 조선인학교 폐쇄령 등에 관련된 사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각 진영이 처한 입장이나 이념적 성향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 朴慶植編(2001)『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 戰後編』第8卷、不二出版
 宋惠媛(2014)『在日朝鮮人文學史』のために、岩波書店

嚴基權·李京珪(2017)「戦後在日朝鮮人のメディア活動とその展開について- 朝鮮文化教育会と『文教新聞』を中心に」『日本近代學研究』第57輯

윤희상(2006)『그들만의 언론』천년의시작

「<創刊之辞> 吾らに平和と幸福をもたらす文化運動」『文教新聞』第1號, 1947年9月15日

「創刊の辞」『民團新聞』第1號, 1947年2月21日

「在日同胞に告ぐ」『民團新聞』第1號, 1947年2月21日

「朝鮮獨立と南鮮臨時政權の動き」『民團新聞』第9號, 1947年6月30日

「民團新聞を改題し民主新聞創刊」『惜別の辞』『民團新聞』第20號, 1947年10月25日

「改題に際して」『民主新聞』第21號, 1947年11月1日

「發刊の 말」『朝連中央時報』第1號, 1947年8月15日

「宣言」『綱領』『朝連中央時報』第9・10合併號, 1947年10月17日

「文教は民團、朝連の傘下團體に非ず」『文教新聞』第56號, 1949年2月28日

논문투고일 : 2018년 04월 05일
심사개시일 : 2018년 04월 18일
1차 수정일 : 2018년 05월 10일
2차 수정일 : 2018년 05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8년 05월 17일

<要旨>

미군정기 재일조선인 발행 신문의 사설 고찰
 - 『民主新聞』·『朝連中央時報』·『文教新聞』을 중심으로 -

이행화·이경규

전후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일본에 남은 조선인들은 자신들을 위한 조직을 만들어야 했다. 조국은 해방되었지만 곧바로 조국에 돌아갈 여건이 형성되지 못했고, 미군이 점령하고 있는 일본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조직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조직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조직은 좌파 성향의 재일조선인연맹이었고, 두 번째 조직은 우파 성향의 재일조선거류민단이었다. 조선의 남쪽과 북쪽에 각기 다른 이념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같은 민족이라는 정서를 공유했던 일본의 조선 사회는 조국의 분단 현실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들 두 조직은 점차 대립적인 성향을 나타내게 되었다.

전후의 조선은 마소 균정 하의 분할 주둔으로 신탁통치에 대한 좌우익간의 찬반 갈등이 극심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단독정부가 수립되었는데, 재일조선인의 입장에서 보면 두 개의 조국이 생겨나는 결과가 된 셈이다. 이에 그 당시에 발행된 신문의 사설을 통해서, 재일조선인들은 당시에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조국의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저항하고자 했던 문제의식은 무엇에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재일조선인 발행 신문 중에서 각기 정치적, 이념적 성향이 다른 『民主新聞』과 『朝連中央時報』, 『文教新聞』의 사설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세 기관지의 사설은 공히 민족주의와 반일적인 성향을 띠면서도 각기 정치적, 이념적인 성향을 달리 표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plorations into *Zainichi* Koreans-published Newspaper Editorials
 during the U.S. Military Governance of Japan**

Yi, Hang-Hwa · Lee, Gyeong-Gyu

Koreans who still remained in Japan amid chaos after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felt desperate to form organizations representative of themselves. The main reason behind the formation of such organizations was that zainichi Koreans needed them through which their own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could be advocated and protected as one of the ethnic minority groups in Japan, given the circumstance that they could not afford to return to their homeland even after the liberation in 1945. Of them, the most influential zainichi Koreans-led organizations in Japan included, first, the leftist Chongryun (the General Assoc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and, second, the rightist Mindan (the Korean Residents Union in Japan). Following the division of Korea into two politically disparate independent governments being established in the democratic South and the communist North, respectively, the zainichi Korean community in Japan - all having long been closely bound up with the shared sentiment of having the same ethnic roots as Korean - began to become gradually polarized, leading these two leading zainichi organizations to become more and more hostile to each other as a result.

Korea in the postwar period has been in turmoil in the light of a severe confrontation between the left and the right over a trusteeship of Korea under the divided occupancy of the U.S. and Soviet military governments. Under this sociopolitically tumultuous circumstance, on August 15, 1948, an independent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on the U.S.-occupied southern half of the Korean Peninsula; consequently, for zainichi Koreans this meant the creation of two separate homelands.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thus explores questions like how zainichi Koreans have endeavored to understand their own realities in Japan at that time and the ones in their respective homelands, how critically they have seen and problematized the situations, and so forth, by examining editorials featured in three politico-ideologically disparate ones - The Minsyu-shimbun (民主新聞), Choryun Jungangshibo (朝中央時報), and The Bungkyo-Shimbun (文教新聞) - selected out of zainichi Koreans-published newspapers at that time.